



[산업동향] 싱가포르, 세계 최초 미세조류 원료 우유 개발 성공

- 미세조류 단백질 분말 활용해 식물성 대체우유 생산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미세조류로 만든 우유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미세조류 : 단세포 형태의 크기가 매우 작은 생물집단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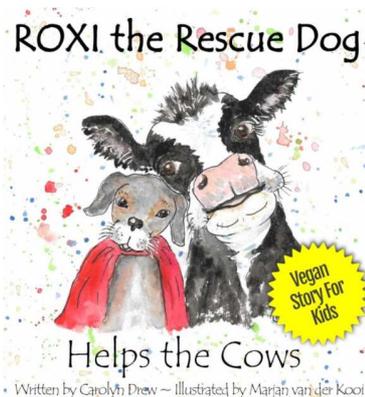
최근 차세대 지속가능 식품생산 전문기업인 소피스 바이오뉴트리언트(Sophie's Bionutrients)는 유당불내증을 앓고 있는 소비자들의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미세조류 원료 식물성 대체우유를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미세조류 단백질 분말을 물과 섞은 후 균질화 과정을 거쳐 우유가 함유되지 않은 비(非) 유제품으로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이 제품은 젖소로부터 생산된 우유와 비슷한 수준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분말 함량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단백질 함량은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업체는 우유뿐만 아니라, 햄버거 패티, 단백질 크래커 등 미세조류 원료를 활용한 다양한 대체식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prnewswire.com, 5월 3일 >

[마케팅] 美,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채식 권고 동화책 발간

- 동물복지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 강화는 물론 식물성 우유 섭취 유도



미국에서 공장식 축산 문제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을 높이고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채식을 권고하기 위한 동화책이 발간되었다.

최근 한 유명 동화작가는 구조견 록시를 주인공으로 하는 동화 시리즈를 통해 행복한 젖소와 슬픈 젖소의 모습을 동시에 그려내며 구조견이 슬픈 젖소를 구해내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을 높이고 동물학대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저자는 이미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구조견 록시 시리즈를 발간해왔으며, 특히 이번 시리즈는 완전 채식을 다룬 첫 동화책으로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우유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우유 섭취를 유도하고 있다. < 출처 : farminguk.com, 5월 1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